

뉴딜+혁신금융에 76兆 톤 큰 지원... '넘버원 금융' 잔걸음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3부. 디지털 뉴딜
KB금융지주

혁신금융 66조, 뉴딜사업 10조
뉴딜·혁신금융협의회도 구성
윤종규 회장 “전사적 역량 결집”
모바일·디지털, 고객중심 방침

KB금융그룹에게 한국판 뉴딜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기회다.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건전한 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의 자산 성장과 함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금융기관에도 의미 있는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한국판 뉴딜’ 투자 본격화

KB금융은 기존 혁신금융 지원 금액 66조원에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 금액 10조원을 추가해 총 7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앞서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과

제를 중점 지원 영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9조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KB금융은 여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사업 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지원규모가 총 10조원으로 늘었다.

현재는 각 영역별 지원·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검토 중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는 BTL(Build-Transfer-Lease)펀드인 ‘(가칭)생활인프라 BTL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KB자산운용이 책임 운용하고, KB국민은행 등이 펀드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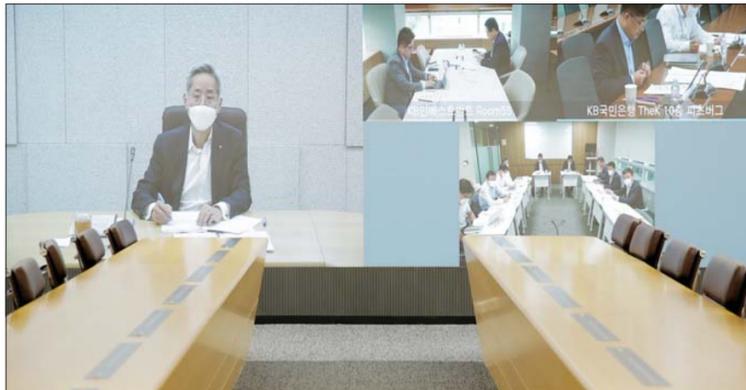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KB국민은행이 ‘서울준천고속도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사업’에 485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은 이를 통해 국민들과의 수익 공유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는 50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약 1300억원 규모의 ‘KB신재생에너지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를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비금도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에도 성공했다.

윤 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지난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리브엠(Liiv M) 론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가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KB금융그룹

한다”며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고객가치 중심... “넘버원 금융플랫폼”

KB금융의 디지털 혁신 전략의 중심은 고객가치다. 디지털기술 자체나 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윤 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고객 접점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강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KB만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한 명, 한 명을 위한 최고의 금융 상품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넘버원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리브엠(Liiv M) 역시 이익창출보다는 금융거래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통신업에 진출해 고객에게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통한 합리적인 통신비 제공은 물론 유심칩에 인증서 탑재 등 다양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데이터를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상품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KB는 모바일플랫폼 전략에 있어서도 고객 혜택에 방침을 두고 있다.

영업점의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풀뱅킹(Full-Banking) 앱인 ‘스타뱅킹’과 별개로 생활 속에서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송금, 결제, 환전, 교통 등 핵심 생활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리브(Liiv)’ 앱을 운영 중이다.

특히 모바일 온리(only)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업과는 달리 국내 최대규모의 오프라인 채널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모바일 혁신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꾀한다.

한편 KB금융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DT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내 디지털/IT/데이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혁신부문’을 신설한 바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바이든 당선편 한미동맹 ‘강화’... 방위비 협상 유연 전망

>> 1면 ‘바이든 대선 고지’서 계속
“도둑질” vs “모든 표 집계” 양쪽 지지자들 곳곳 시위

美 대선

바이든, 동맹국과 공조 천명
北과 비핵화 협상은 상당 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판을 향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이 밝힐 외교 전략에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꼽힌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부문에 있어 파트너십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비추볼 때 한미동맹 역시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협정(SMA)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면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SMA 협상은 다소 유연하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의 공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한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위비 분담이 많은 점을 언급한 것도 협상의 유연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갖는 협상 스타일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실무진 간 협의 성과에 따라 정상 간 대화를 진행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근법인 셈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1,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회담 역시 정상 간 결단으로 치러진 바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2022년 전시작전권 환수의 경우 현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분석이 있다. 동맹국 차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전통적 북핵 해법인 보텀업 방식으로 실무회담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7월까지의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라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긴밀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최영훈 기자